태권도 영상 열기 '후끈'

태권도장 활성화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서 기획 · 제작
조회수 현재 67만회… 도장 활성화 응원 댓글 달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취미 태권도라는 말이 딱인 거 같아요", "정말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멋진 태권도 홍보영상인거 같아요.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태권도가 전 세계로 더욱더 많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이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영상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태권도'라는 주제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운동이자 취미인 태권도'를 도장에서 만나보자 라는 의미를 담아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생활스포츠로 태권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대하고자 기획 · 제작했다.

지난 1일부터 지상파와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태권도원 공식 SNS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 조회 수가 27일 현재 67만회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댓글이 400개가 넘게 달리며 국기 태권도와 도장 활성화를 응원하고 있다.

태권도장 활성화 포스터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또한, SNS와 함께 11월 한 달간 KBS 2, SBS, tvN 등 TV에도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장 활성화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프로그램도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KBS 주말연속극 '효심이네 각자도생'이 16.6%, 1박 2일이 8.5%를 비롯해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 5.8%, tvN '어쩌다 사장 3'가 5.1%, 유키즈 온 더 블럭이 4.6% 등 태권도와 태권도장 활성화라는 광고 목적을 많은 시청자에게 노출시키고 있다. **시청률 통계: 닐슨코리아, 20~26일 주간 시청률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2021년부터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해 대한태권도협회와 함께 TV 광고를 제작 · 송출하고 있다"라며 "도장에 직접적 지원은 못하지만 홍보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며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15초와 20초, 30초, 60초 등 4편의 영상물과 3종의 포스터를 광고에 활용하는 동시에 이들 영상물과 포스터를 대한태권도협회, 17개 시도협회를 비롯한 전국 1만여 도장에도 제공해 태권도 및 도장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KBO MVP 수상 소감 밝히는 페디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NC 페디가 MVP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창선운산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성료

제3회 고창선운산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지난 25일 스포츠타운 야구장과 축구장에서 개막을 알렸다.

이번 대회는 42개팀 550여명이 참가해서 연식부, 경식부 2개부로 나누어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대회기간 중 특별퍼포먼스로 심덕섭 군수의 시타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의 시구로 결승전의 개막을 알렸다.

특히, 시타를 하고 나서 심덕섭 군수는 "올해 2월에 개최 된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서는 시구를 하고 이번에는 시타를 하게 돼 더욱 특별한 대회로 기억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고창에 방문하는 수가 선수 및 학부모 등 1,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유소년야구대회는 선수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로 인한 경제 파급력은 약 2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 참여에만 그치지 않고 고창 관광까지 연계될 수 있게 해 고창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 춘향 전국 마라톤대회 성료

하프 · 풀코스 등 경기 진행
메달리스트 이봉주 팬 사인회도

남원시가 후원하고 남원시체육회(회장 류흥성)과 남원시육상연맹, 전국마라톤협회가 주최 · 주관한 '2023 남원 춘향 전국마라톤대회'가 지난 26일 전국 각지에서 3,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육상경기장을 출발하여 의료원 앞, 이백문화체육센터, 장안4가, 범실교 앞, 노암4가, 송치 버스정류장을 돌아오는 코스로, 5km, 10km, 하프(Half)코스, 풀(Full)코스 등 경기를 진행했다.

행사장 내 특산품 홍보 부스 설치는 물론 실시간 대회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남원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광한루를 무료로 입장하도록 해 남원 문화의 우

수성을 알렸다.

특히 대회 참가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남원을 찾은 전 마라톤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 메달리스트인 이봉주씨는 팬 사인회를 열고 팬들과 사진도 찍으며 대회의 열기를 한층 더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각종 생활 스포츠 대회를 통해 스포츠 명품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진안 용담승마클럽 전국 승마대회 입상

진안군 용담승마클럽이 지난 21일~24일까지 장수군 공공 승마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입상했다.

진안군 유소년 승마단은 올해초부터 꾸준히 대회에 참가해 모든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도 역시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명실상부한 유소년 승마 강자의 위엄을 뽐냈다.

경기결과 △장애물 유소년 포니 80class(초등부) 임지아(진안초) 3위 △장애물 80class 임지아(진안초) 1위, 이다영(금산동초) 3위 △장애물 60class 임지아(진안초) 1위, 이다영(금산동초) 2위 △마장마술 유소년 D class 김재훈(안천중) 1위, 이다영(금산동초) 3위, 임지아(진안초), 여준우(금산동초) 장려상 수상을 기록했다.

진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래가 촉망되는 유소년 승마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진안군 승마산업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수영 황선우, 세계선수권 출전

대표선발전 자유형 200m서 1위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20 · 강원도청)가 대표 선발전 자유형 200m에서 무난히 1위를 차지하며 3회 연속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을 확정했다.

황선우는 27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4년 수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경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5초6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김우민(강원도청)이 1분46초06으로 2위, 이호준(대구광역시청)이 1분46초07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 세부 종목별 결승에서 국제수영연맹 A기록 통과자가 2명 이상 나오면 2위까지 내년 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롱코스(50m)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얻는다.

남자 자유형 200m A기록은 1분47초06이다. 황선우와 김우민은 이를 가뿐히 충족시키면서 이 종목 출전권을 따냈다.

황선우는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3회 연속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지난해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 자유형 200m 은메달을 딴 황선우는 올해 후쿠오카 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후쿠오카 대회에서 황선우와 함께 동반 결승행을 일궜던 이호준은 A기록을 충족했지만, 김우민에 0.01초 차로 뒤지면서 아쉽게 출전권 획득이 불발됐다.

국내 중장거리 최강자로 주종목인 자유형 400m, 800m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대회 자유형 1500m에 나서지 않은 김우민은 단거리에 속하는 200m에서 경쟁력을 과시하며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경기를 마친 뒤 황선우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통해 "자유형 200m에서 1분45초라는 나쁘지 않은 기록이 나왔다. 내년 열리는 세계선수권 준비를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이 끝난 이후 컨디션을 끌어올려 선발전을 준비하기가 힘들었지만, 세계선수권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레이스해 좋은 기록이 나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다른 선수들도 비시즌인데 좋은 기록이 나왔다. 계영 800m가 기대된다"며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도하 세계선수권과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기록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민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자유형 200m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2위를 차지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계영 800m가 매우 기대된다. 계영 800m 뿐 아니라 주종목인 자유형 400m와 800m도 훈련에 집중해 세계선수권과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레이스를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뉴시스